

가이산도

가이산도(開山堂)는 엔교지 절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오쿠노인(奥之院) 안에 있습니다. 이 불당은 개조 쇼쿠 대사가 입적한 1007년에 대사의 유골을 모시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천 년이 넘도록 매일 근행(부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독경, 예배, 분향 등을 하는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1673년에 건립되었으며 에도 시대(1603~1867) 사원 건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붕을 받치도록 짜맞춘 가로대는 1600년대에 활약했다고 하는, 전설적인 히다리 진고로가 조각한 3구의 금강역사를 포함하여 여러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는 건물의 네 모퉁이에 각 처마를 받치는 금강역사가 1구씩 붙어 있었으나, 4구 가운데 1구가 엄청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건 3구뿐이라고 합니다.

천태종(天臺宗) 사원에 공통되는 건축양식에 따라 불당 한가운데는 봉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제단은 두텁게 옷칠을 한 문과 복잡한 지붕이 있는 큰 감실을 받치고 있습니다. 불당의 격자천장(각재를 격자 모양으로 짚지어 뒷판을 붙인 천장)은 감실 윗부분이 높게 되어 있어 쇼쿠 대사의 고귀한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유골은 등신대의 쇼쿠 대사상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2008년에 대사 상을 엑스레이로 촬영했을 때, 이 상의 머리 부분에 쇼쿠 대사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유골이 모셔져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가이산도는 일본 중요문화재입니다.